

## 일본의 한국어학 연구 – 현대 한국어 문법 연구를 중심으로

노마 히데키[野間秀樹]

동경외국어대학 대학원 지역문화연구과  
대조언문정보강좌(對照言文情報講座) 교수

noma@tufs.ac.jp

1. 들어가기
2. 일본의 한국어학 연구의 기본적인 성격
3. 일본 연구자의 세대교체와 학계의 동향
4. 일본의 한국어 문법연구 – 제2세대의 출발과 언어사실 주의
5. 일본의 한국어 문법연구 – 언어정보학적 연구와 계량의 등장
6. 일본의 한국어 문법연구 – 단어결합론의 전개와 문장의 계층구조론
7.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연구의 전개
8. 새로운 대조언어학 – 표현양상론과 담화 연구
9. 끝으로

- 1) 본고는 일본어로 쓰여진 노마野間秀樹(2005)의 일부를 한국어로 고쳐, 그것을 토대로 가필한 것이다. 1945년 ~ 1991년의 일본에서의 한국어 연구의 개관은 시부志部昭平(1992) 참조. 현대한국어에 대한 연구 사로서는 가도와키門脇誠一(1997), 간노菅野裕臣(1997), 노마野間秀樹(2002) 참조.

### 1. 들어가기

본고의 목적은 동시대의 일본에서의 한국어 연구, 특히 현대 한국어의 문법연구에 주목하여 개관하고 그 기본적인 특징을 그려내는 데에 있다. 일본에서 행해지고 있는 한국어 연구의 양과 그 폭은 서양 각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연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방대하여 그들 전부를 한정된 지면에서 다루기는 힘들다. 전후(戰後)의 한국어 연구도 언급하면서 1990년대 이후의 현대 한국어 문법 연구를 논의의 주된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sup>1)</sup>

### 2. 일본의 한국어 연구의 기본적인 성격

일본에서의 한국어 연구의 기본적인 성격은 한국에서의 한국어 연구와 비교해 봄으로써 더욱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한국어 연구는 ‘국어학’으로서의 연구라는 성격이 강한 데 비해, 일본에서의 한국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득

징을 들 수 있다. 첫째, 어디까지나 외국어 연구, 혹은 언어 연구로서의 한국어 연구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말하자면 ‘언어학’으로서의 한국어 연구인 것이다.

‘국어학’으로서의 한국어 연구란 한국어 모어화자에 의한, 모어화자를 위한 연구라는 것을 말한다. 일본에서의 한국어 연구의 대부분은 일본어 모어화자에 의한 것으로, 여기에 한국어 모어화자가 참여하게 된다. 모어가 아닌 언어를 비모어화자가 공유하기 위한 연구인 것이다.

둘째, 단순한 개별 언어학으로서의 한국어 연구가 아니라 많은 적든 간에 그 배경에는 항상 일본어가 비춰 주고 있는, 대조언어학적인 계기를 내포하고 있는 점이다. 연구자의 모어가 일본어라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일본어와의 대조라는 관점이 수반되는 것이며 또는 연구자의 모어가 한국어인 경우에도 일본어권에서의 연구라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일본어와의 대조적인 관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두 번째 특징은 연구자와 연구 대상 언어의 구조적인 위치 관계에 연유되는 것이다.

세 번째 특징은 역사언어학적인 연구는 별도로 하더라도, 현대 한국어 연구는 많은 적든 한국어 교육이라는 계기를 내포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연구자가 일본어 모어화자인 경우, 자기 스스로의 한국어에 대한 의문이 연구 대상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스스로의 의문을 푸는 작업이 곧 한국어 교육에 직접 공헌을 하게 된다는 원리적 관계가 내재되는 것이다. 연구자가 일본에 온 한국어 모어화자의 연구자인 경우에도 그 많은 경우에는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게 되므로 여기서도 역시 한국어 연구는 한국어 교육의 내실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네 번째 특징은 주요한 연구들이, 언어사실에 기초를 둔, 실증적인 연구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단 이 점은 연구에 대한 공헌도의 측면에서의 특징으로, 연구의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실증적인 성격이 약한 연구도 없지 않아 있다.

### 3. 일본 연구자의 세대교체와 학계의 동향

#### 3.1. 고노[河野六郎]와 제1세대의 학자들

근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의 한국어 연구는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1868-1941)를

비롯하여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1882-1944) 등의 우수한 연구자들에 의해 뒤받침되었다. 또한 광범위한 일반언어학적인 시야에서 한국어를 보던, 일본을 대표하는 석학 고노 로쿠로[河野六郎](1912-1998)가 전후 일본의 한국어 연구의 정상에 있었다. 이것은 일본의 한국어 연구에 있어서의 행운이었다고 할 수 있다. 패전 후 고노[河野六郎]는 경성(京城)제국대학에서 일본으로 돌아가, 동경교육대학의 한문학과, 언어학과의 교수로 재직하였다. 그의 업적은,平凡社『河野六郎著作集』전3권 그리고『文字論』으로 압축되어 있고 한편으로 세계 최대의 언어학 사전으로 일컬어지는三省堂『言語学大辞典』으로 언어학계의 거봉으로 우뚝 솟아 있다.

이 고노[河野六郎]의 가르침을 받은 학자들이 전후 일본의 한국어 연구를 이끈 것이다. 나카무라[中村完], 간노[菅野裕臣], 시부[志部昭平], 가도와키[門脇誠一], 쓰지[辻星兒] 등의 직계 제자들, 그리고 아오야마[青山秀夫], 우메다[梅田博之], 오에[大江孝男]. 그 중에서 쓰지 세이지[辻星兒]는 고노의 마지막 제자로서 한국어의 역사적 연구뿐만 아니라『言語学大辞典』집필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그 공헌 또한 크다. 48세에 세상을 떠난 시부 쇼헤이[志部昭平](1943-1992)는 언어학적, 문헌학적 연구를 고도의 수준으로 승화한 명저『諺解三綱行実図研究』를 남겼고 2005년에 작고한 나카무라 다모쓰[中村完](1932-2005)는 그의 중세 한국어 연구를『訓民正音の世界』로 집대성하였다.

우메다[梅田博之]는 동시대의 최전선의 한국어 학자이며 일본언어학회와 일본음성학회의 회장까지 맡았으며 언어학, 음성학에 있어서 한국어학의 압도적인 업적을 남기고 있다. 특히 음성학에 관한 저작은 선구적인 것이었으며 한국어 어휘의 의미 기술에 관한 연구는 지금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리고 간노[菅野裕臣]는 그 많은 저작으로 음운론에서 문법론까지, 역사적 연구에서 현대어 연구, 알타이 제어 연구에 이르는 광범위한 연구의 최전선에 섰으며 그뿐만 아니라 후진의 육성과 일본의 한국어 교육의 기초를 다렸다는 초인적인 성과를 남기고 있다.

의성의태어 연구는 한국 학자의 연구보다 해외 연구자들의 연구가 훨씬 앞선 것이었는데 일본에서의 아오야마 하데오[青山秀夫]의 업적은 그러한 연구의 앞장서는 것이었다. 그 성과는 의성의태어, 음상징어의 이언어(二言語) 사전인『朝鮮語

『象徵語辭典』으로서 결실을 맺었다. 쓰키모토 이사오[塚本勲]는 『角川朝鮮語大辭典』의 위업을 이루었다. 이것은 지금도 한국어와 다른 언어 간의 세계 최대의 이언어 사전이다. 문현학, 서지학적인 연구에서는 후지모토[藤本幸夫]가 고고한 투쟁을 계속하면서 귀중한 공헌을 하고 있다. 일찍이 1950-1960년대에 이미 활약하고 있었던 송지학[宋枝學], 가지이[梶井勝](1927-1988), 양호연[梁昊淵](1928-)도 잊을 수 없다. 이러한 전후의 제1세대에서 제2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로 연구자의 총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맹렬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 3.2. 학회와 학회지

일본의 한국어학에 관한 학회로서는 조선학회가 가장 큰 학회이다. 이것은 한국어학뿐만 아니라 문학이나 역사학 등 모든 한국학을 규합하는 학회이며 전후 한국어학에서는 거의 유일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고노[河野六郎]의 「朝鮮漢字音の研究」(조선 한자음의 연구)를 비롯, 많은 한국어학 논문들이 조선학회의 학회지인 『朝鮮學報』를 통해 세상에 선보이게 된 것이다. 종교단체인 천리교가 지원하고 있으며 일년에 4권씩 간행되고 있다. 2006년 7월에는 199·200집 기념호가 간행된다. 현재 조선학회의 한국어학 분야에서는 문현학의 후지모토[藤本幸夫], 문법론의 마쓰오[松尾勇], 스즈키[鈴木陽二] 등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선어연구회는 1983년 간노[菅野裕臣], 하야카와[早川嘉春], 시부[志部昭平]에 의해 설립되어 꾸준한 연구회 활동을 계속해 왔다. 1999년에는 전국적인 학회 조직으로 성장, 개편되었다. 전국적인 규모의 순수 한국어학 연구학회로서는 사실상 유일한 존재이다. 연구회도 2006년 5月 현재, 213회를 거듭하였고 구로시오 출판에서 『朝鮮語研究 1』, 『朝鮮語研究 2』 2권을 간행, 2006년 6월에는 제3권이 간행된다. 2003년 9월에 동경외국어대학에서 개최된 제200회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는 160명을 넘는 등록자를 기록하며 한국어학의 독자적인 학회로서는 사상 최대규모의 대회가 되었다. 그후 2005년에는 한국의 이중언어학회와의 공동 개최로 더 큰 규모의 대회가 열렸다. 초대 (1983년 4월 - 1900년 10월) · 3대 (1992년 8월 - 1997년 11월) 회장은 간노[菅野裕臣], 2대 (1990년 11월 - 1992년 8월) 회장은 시부[志部昭平], 4대 (1997년 12월 - 2004년 4월) 회장은 노마[野間秀樹], 2004년 5월 이래 현재 제5

3) “해외한국학 동향, 미국의  
한국학자: 게리 레디야드.”

대 회장은 후쿠이[福井玲]가 맡고 있다.

그밖에『東京大学文学部朝鮮文化研究室紀要』와, 2005년 3월에 탄생한 간다[神田]外語大学 한국어학회의『韓國語學年報』에 한국어학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학회지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朝鮮語教育研究会는 유타니[油谷幸利]가 이끄는 한국어 교육 전문 연구회이며 교토 등 간사이[關西] 지방을 중심으로 꾸준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류상희[柳尚熙], 김동준[金東俊] 등 제1세대에 속하는 연구자들에 의한 연구회 활동도 계속되고 있다.

일본에서의 한국어학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학회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그밖에 논문수는 그다지 많지 않지만 일본언어학회의『言語研究』에도 한국어에 관한 중요한 논고가 게재되어 있다. 일본어와 한국어의 대조연구 분야에서는 일본어교육학회의『日本語教育』과 社会言語科学会의『社会言語科学』 등에도 귀한 논고들을 발견할 수 있다. 대조연구를 짚어지고 있는 이들 근년의 집필자들 중에서는 한국에서 온 젊은 유학생들이 활약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 4. 일본의 한국어 문법 연구 – 제2세대의 출발과 언어사실주의

##### 4.1. 제2세대의 등장

일본의 제2세대의 연구는, 문법연구에서 출발되었다. 제1세대와 제2세대의 중간적인 위치에 있는 유타니[油谷幸利]는 1978년에『朝鮮學報』에「現代韓國語의 動詞分類 - aspect를 中心으로」를 발표했다. 이것은 아스펙트 즉 상에 의한 동사분류를 시도한 것으로, 긴다이치[金田一春彦](1913-2004)에서 요시카와[吉川武時]에 이르는 일련의 일본어 연구에서의 성과를 한국어 연구에 적용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이 논고는 그 내용의 신선힘이 한국어로 쓰여짐으로 인해 한국의 연구자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주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상과 동사의 관계를 둘러싼 많은 논고가 나타났다. 일본의 새로운 시대의 문법 연구가 한국에 영향을 준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가도와카[門脇誠一], 쓰지[辻星児], 마쓰오[松尾勇], 구마타니[熊谷明泰], 유타니[油谷幸利], 다카시마[高島淑?], 오쿠다[田一廣] 등은 대부분이 1940년대에 태어난 학자들이며 이들의 활약은 제1세대와 제2세대의 중간적인 위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후 시오타[塩田今日子]는 1986년, 「現代朝鮮語のアスペクト」(현대 한 국어의 아스페트)를 발표했다. 이것은 일본어 일본어 연구의 하나의 중심 인물이었던 오쿠다[奥田靖雄](1919~2002) 등의 상론에 의거한 것으로 공간되지 않았으므로 한 국 국내에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본의 한국어 상 연구사의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노마[野間秀樹]는 1980년대 말엽부터 mood 형식을 대상으로 삼아 한국에서의 ‘의지=추량 논쟁’을 비판하고 서법론, modality론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소 위 조사의 결합 양상, 명수사(counter) = 유별사(類別詞 classifier)의 결합 양상을 기준으로 문법적인 조건에 의한 한국어 명사분류를 시도하였다. 이 명사분류에는 한국 학자들이 관심을 보인 바 있다.

이토[伊藤英人]의 시제론의 전개도 주목할 만하다. 이것 역시 실제 용례에 의거한 분석이었다. 시제론과 상론을 구별하여 ‘한다’ 형과 ‘했다’ 형에 관한 날카로운 분석을 보여 주었다. 전자를 비과거형, 후자를 과거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언어학연구회의 영향도 엿볼 수 있다.

하마노우에[浜之上幸]는 1990년, 러시아와 구미의 상론, 일본의 언어학연구회의 상론, 그리고 유타니[油谷幸利], 시오타[塩田今日子] 아래의 한국어 상론을 집대성하였다. 특히 상에 의한 동사분류는, 그 이후에 쓰여진 상 연구의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이 되었다. 정현숙[鄭玄淑]이나 나카지마[中島仁]의 접속형(接續形)=부동사형, 연체형(連體形)=관형형의 연구에서도 이용되고 있다. 하마노우에[浜之上幸]는 그 이후에도 계속 상에 관한 논진을 펼쳤다. 그 이전에는 “동사 ‘먹다’의 상적 자질”처럼 동사 어휘 단독으로 논의되었던 상론이 “동사 ‘먹다(밥을)’의 상적 자질”과 같이 사실상 단어결합의 상적인 성격을 논의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그리고 세계의 한국어학에서도 거의 거론되지 않고 있었던 택시스(taxis)론의 도입은 특히 주목할 만한다.

유타니[油谷幸利]를 제외한 4명은 모두 간노[菅野裕臣]의 제자이다. 1950

년대 - 1960년대생인 그들의 논고가 곧 한국어 문법 연구 제2세대의 출발점이었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미 그 제2세대의 제자들, 즉 주로 1970년대생인 제3세대의 연구  
자들이 제일선에 나서고 있다.

#### 4.2. 언어사실주의의 태동

제2세대들의 모든 논고는 언어사실에 기초를 둔 기술적인 연구로, 수천 개의 용례에  
서 뽑은 많은 용례를 제시하면서 논의를 전개한 논문들이었으며 한국의 논문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논문들이었다. 한국의 연구자들이 보면 한국의 기존의 문법론과  
는 너무나도 다른 풍모를 느꼈을 것이다. 모어화자가 아니기 때문에 용례 수집이 필  
요한 것뿐이라고 생각하는 연구자들도 더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몇 년  
후에는 모어화자인 연구자들도 말뭉치(corpus)로 많은 용례를 수집하며 연구를 진  
행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많은 언어사실에 접하고 있는 자가 보면 머리 속에서 생각  
한 작례만으로 논의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한편으로는 의미 없는 유희 정도 밖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다. 언어사실은 그만큼 강력한 것으로 언어사실에 입각하  
는 실증적인 방법은 그 이후 일본에서의 한국어 문법 연구의 사실상의 표준이 되었다.  
연구의 이러한 방법론적인 입장을 언어사실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현대 한국  
어의 언어사실주의적 연구야말로 1980년대 말엽 이후의 일본의 한국어학의 결정적인  
특징의 하나라고 하겠다.

### 5. 일본의 한국어 문법 연구 – 언어정보학적 연구의 여명과 계량의 등장

#### 5.1. 언어정보학의 선구자들

컴퓨터를 사용한 연구는 현재는 너무나도 보편화되었지만 한국어 연구에서는 BASIC  
시대에 일찍이 마이크로 컴퓨터를 이용한 연구에 관한 논고를 발표한 유타니[油谷幸  
利]가 선구적이라 할 수 있다. 1981년의 일이며 그후 1986년에는 한국의 중학교 교과  
서의 KWIC 색인을 발표하였다. 언어정보학적인 연구의 여명을 여는 업적들이다.

한편 후쿠이[福井玲]는 중세 한국어의 KWIC 색인을 만들었다. 사가판(私家版)이긴 하였으나 1885년에 작성된 『月印千江之曲 上 KWIC索引』이 그것이다.

후쿠이[福井玲]의 KWIC 색인은 시부[志部昭平]의 『諺解三綱行実図研究』로서도 결실을 맺었다. 1990년이라는 제작년도를 생각하면, 한국을 포함한 학계에 있어서도 언어정보학의 선구적 업적이라 할 수 있다. 후쿠이[福井玲]의 로마자 전사법은 그 이후 일본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후쿠이[福井玲]는 한글 등의 TeX에 관해서도 귀중한 공헌을 하고 있다.

언어정보학적인 업적으로서는 조의성[趙義成]도 『月印釋譜(卷一)語彙索引』(2002), 『初刊本『釋譜詳節』統合KWIC索引』(2002) 등으로 활약하였다. 색인류는 그후로 한국의 역사적 언어 연구에서도 대대적으로 작성되게 되었으나 소위 성조 즉 악세트를 표시하는 방점을 살린 색인은 일본에서만 발표된 것으로 추측된다.

## 5.2. 계량 혁명 - 양과 질을 둘러싸고

1992년에는 권재숙[權在淑]이 일본어의 surukara형이나 site형에 해당되는 한국어의 접속형=부동사형(converb)에 관한 논고를 잇달아 발표했다. 접속형 중에서 일본어 site형에 해당되는 형태가 한국어에는 3 가지 혹은 그 이상 있어서 한국어 문법론의 연구에서는 큰 문제가 되었으나 모어화자인 한국의 연구자들에게는 큰 관심사가 아니었다. 오직 비모어화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입장의 연구자들만이 가지는 고충이었을 것이다. 권재숙[權在淑]의 이들 논문은 용례는 수백 개에 불과한 작은 시도 이긴 했으나, 소설 등에 실제로 나타나는 대상 text의 모든 용례를 계량하여 용언의 종류 등의 조건으로 당해 접속형이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가를 도식화하여 어휘와 문법의 상관까지 명시적으로 제시하였다. 접속형의 복잡한 기능이 도대체 어떤 조건 하에서 대략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가를 계량이라는 작업으로 일목요연하게 보여 준 것이다. 계량을 도입한, 권재숙[權在淑]의 이 기술 방법은 그 이후의 정현숙[鄭玄淑], 우치야마[内山政春], 시바[柴公也], 이카라시[五十嵐孔一] 등 접속형=부동사형 연구, 나아가서 무라타[村田寛], 나카지마[中島仁], 나카니시[中西恭子], 스가이[須賀井義教], 임전[林田] 등 문법 연구 일반의 하나의 모델이 되었다. 언어 사실주의와 함께 하나

의 스타일을 만들어 준 셈이다. 영향을 주는 연구는 많으나 이렇듯 하나의 스타일을 만들어 버린 연구는 드물다.

이것을 계기로 접속형 연구는 일본에서 큰 진전을 보였다. 하마노우에[浜之上幸]가 도입한 *taxis*론적인 관점도 일본의 연구에서는 특징적인 점이다.

노마[野間秀樹]는 대격과 동사를 둘러싼 1993년의 조사에서는 계량을 더 옥더 철저히 시도하였다. 3000 개 정도의 용례를 다양한 관점에서 계량한 것으로, awk나 perl 등 컴퓨터 상의 tool을 이용한, 수만 번의 identification, 계량 작업의 시도이기도 하였다. 문장의 계층구조에 관한 논고에서도 계량은 기초적인 작업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에 이르는 앞 단계를 동경외국어대학에서 함께 하고 있었던 서상규[徐尚揆]는 그 이후 延世大学으로 옮겨 일본에서 맹아적이었던 계량적 연구를 본격화 확대화하는 데 이바지하였고 한국에서의 계량적인 연구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코퍼스 언어학이 한국어학의 기본으로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분야가 된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 6. 일본의 한국어 문법연구 - 단어결합론의 전개와 문장의 계층구조론

### 6.1 단어결합론

소위 단어결합(slovosochetanie)론은 러시아에서 탄생하여 러시아 문법에서는 중요한 한 분야가 되어 북한과 일본으로 들어갔다. 오쿠다[田靖雄]가 이끈 언어학연구회는 단어결합을 ‘연어’(連語)라고 불렀다. 일본어 문법에서 격 연구 등을 중심으로 ‘연어론’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이 언어학연구회의 한남수[韓南洙] (1979) 「現代朝鮮語における格助詞 - egeについて」(현대 한국어에서의 격조사 - ege에 대하여)는 일본에서의 한국어에 관한 단어결합론=연어론의 효시였다. 그후 조의성[趙義成]은 원리론적인 논고를 발표하였고 진만리자[陳滿理子], 정현숙[鄭玄淑], 노마[野間秀樹], 스가이[須賀井義教] 등은 단어결합론을 이용하여 다양한 논의를 펼치고 있다. 한국어학의 단어결합론이 일본어학의 연어론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modality

를 제외한 ‘비가 + 오다’와 같은 결합도 단어결합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단어결합론은 한국에서는 겨우 알려지기 시작한 단계라 할 수 있다.

## 6.2 문장의 계층구조론

한편, 일본어에서 미나미[南不二男]가 제시한 문장의 계층구조론을 이카라시[五十嵐孔一]와 스가이[須賀井義教]는 한국어에도 적용하였다. 노마[野間秀樹]는 이것을 단어결합론, 절구조론, mood, modality론, 언어장론과 함께 전개하여 어휘와 문법의 상관, 그리고 단어가 의미가 되는 메커니즘을 그려내고 있다. 미나미[南不二男]의 계층구조론은 한국의 일본어학에서는 알려진 바 있지만 아직 한국의 한국어학에서는 겨우 알려지기 시작한 단계이다. 일본에서 배운 박소영[朴素英]이 한국에서 발표한 논고가 일본의 한국어 문장의 계층구조론의 영향하에서 태어난 논고의 효시일 것이다.

# 7.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연구의 전개

## 7.1 한국어 교육의 확대와 사전

우메다[梅田博之], 간노[菅野裕臣] 등 제1세대가 개척한 기초 위에 한국어 교육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폭발적으로 확대되었다. 유타니[油谷幸利], 오구리[小栗章], 노마[野間秀樹], 하세가와[長谷川由起子], 지정희[池貞姫], 후지이[藤井幸之助], 손정혜[孫禎慧] 등의 한국어 교육에 관련된 연구와 교재가 있다.

오구리[小栗章]를 중심으로 국제문화포럼은 일본의 문부과학성조사 할 수 없었던, 대학과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현상을 대규모의 조사에 의해 만천하에 공개하였다. 일본의 50%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는 사실 등이 처음으로 밝혀진 것이다. 적잖은 한국어 교육 논문이 생산되는 가운데 손정혜[孫禎慧]의 오용분석은 그 절차의 치밀함으로 주목할 만한 연구이다.

교재라는 점에서는, 1980년대의 교육을 이끈 와타나베[渡辺吉鎧], 김유홍[金裕鴻] 등의 공헌도 크다. 오오무라[大村益夫], 사에구사[三枝壽勝], 하타노[波田野節子] 등, 문학을 비롯한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이 한국어 교육에 공헌한 것도 잊어서

2) 마[野間秀樹](2005)의 일부를 한국어로 고쳐 그것을 토대로 가필한 것이다. 1945년 ~ 1991년의 일본에서의 한국어 연구의 개관은 사부[志部昭平](1992) 참조. 현대한국어에 대한 연구사로서는 가도와키[門脇誠一](1997), 간노[菅野裕臣](1997), 노마[野間秀樹](2002) 참조.

는 안 된다. 마쓰오[松尾勇], 가네와카[兼若逸之], 오구라[小倉紀藏], 김동한[金東漢] 등은 방송교육을 통하여 한국어 교육의 기반을 넓히는 데 공헌하였다.<sup>2)</sup>

이언어(二言語) 사전으로서는 간노[菅野裕臣] 외 『コスマス朝和辞典』(코스모스 한일사전) (白水社, 1988)은 기존의 사전에 없는 많은 시도를 담은 것이었다. 유타니[油谷幸利], 가도와키[門脇誠一], 마쓰오[松尾勇], 다카시마[高島淑郎]의 『朝鮮語辞典』 (小学館, 1992)은 현재까지도 최상의 사전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그 이전의 사전의 장점을 종합했다고 할 수 있는, 특기할 만한 성과이다. 그리고 사전과 어휘론에 관해서는 조희철[曹喜澈]에 의한 일한사전이나, 마에다[前田綱紀], 구마타니[熊谷明泰], 시라이와[白岩美穂], 황진걸[黃鎮杰], 김연천[金年泉], 윤정인[尹亭仁], 후쿠이[福井玲]의 공헌도 있다.

## 7.2 한일 대조언어학

일본어와 한국어의 대조언어학은 한국어 연구 그 자체에서 보면 양적으로는 꽤 많은 논문이 생산되었으나 질적으로는 뒤떨어진 상태였다. 1980년대 이후, 우메다[梅田博之]와 무라사키[村崎恭子], 후지사와[藤澤文人], 오이[大井秀明], 쓰카모토[塚本秀樹], 후카미[深見兼孝], 가도와키[門脇誠一], 이이да[飯田秀敏], 오고시[生越直樹], 오고시 마리코[生越まり子], 이노우에[井上優], 호리에[堀江薰], 와시오[鷲尾龍一], 스즈키[鈴木陽二], 안평호[安平鎬], 윤정인[尹亭仁] 등의 연구, 오기노[荻野綱男], 김동준[金東俊], 우메다[梅田博之], 나성숙[羅聖淑], 노현송[盧顯松], 임영철[任榮哲], 우에다[植田晃次] 등 사회언어학적인 연구가 나타났다.

일찍이 고노[河野六郎] - 간노[菅野裕臣]가 시사하였던 유형론적인 관심은, 가도와키[門脇誠一], 호리에[堀江薰], 오오바야시[大林直樹](-1999), 하마노우에[浜之上幸] 그리고 이토[伊藤英人] 등의 연구에서 엿볼 수 있는데 이것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조연구에 일관된 관심을 보여 온 오고시[生越直樹]는 2000년에 다른 언어와 함께 그 이름도 『対照言語学』을 표방하는 책을 엮었다. 대조언어학에 대한 이러한 범위 확대도 앞으로 조금씩 전개될 것이다.

대조연구라는 이름을 내걸지 않아도 일본의 제2세대의 문법 연구는 대조

언어학적인 색채가 짙은 것들이 많았다. 이 연장선상에 있는 임전[林田]의 타동 수동 문 연구, 우쓰기[宇都木昭]의 음성학 연구는 하나의 새로운 맹아(萌芽)이다. 한편, 다무라[田村宏](1946-2005), 다와타[多和田眞一郎], 야노[矢野謙一], 후쿠이[福井玲], 고나시[小西敏夫], 기시다[岸田文隆], 이토[伊藤英人], 조의성[趙義成], 나카니시[中西恭子], 무라타[村田?], 나카지마[中島仁], 스가이[須賀井義?] 등 제2세대, 제3세대의 역사 언어학적인 연구가 있고 그 중에서도 한국 한자음에 관한 이토 지유키[伊藤智ゆき]의 공헌은 근년 최대 수확 중의 하나이다.

## 8. 새로운 대조언어학 - 표현양상론과 담화연구

### 8.1. 표현양상론 - 언어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지 않는가

대조언어학의 전체적인 저미 속에서 한국어와 일본어 대조연구의 새로운 방향의 싹을 틔우는 연구가 나타났다. 『朝鮮學報』에 게재된 김은애[金恩愛](2003)「日本語の名詞志向構造(nominal-oriented structure)と韓?語の動詞志向構造(verbal-oriented structure)」(일본어의 명사 지향 구조와 한국어의 동사 지향 구조)가 그것이다. 이것은 일찍이 우메다[梅田博之], 그리고 최근에는 송미령[宋美玲], 오고시[生越直樹] 등이 언급하고 한국의 임팔룡[林八龍]이 대상화하였던 과제이다. 'ame-no hi-ni atta megane-no ko oboeteru?' (lit. 비의 날에 만난 안경의 애 기억나?), 'nanka sagasi-mono?' (lit. 뭔가 찾아-물건=잊은 물건?) un, wasure-mono. (lit. 응, 잊어-물건=잊은 물건?)' 와 같은 명사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가, 한국어에서는 예를 들면 '비 오던 날에 만난 안경을 깬 애, 기억나?' , '뭘 찾아? - 응, 뭘 좀 잊어버려서.' 와 같이 동사 등 용언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로 나타나기 쉽다는 점에 주목하여 도대체 일본어의 어떤 명사가 어떠한 구조에 있어서, 어떤 기능을 맡을 때에 한국어에서는 동사구조화되는가 하는 메커니즘을, 실제 text를 조사하면서 그려내려고 시도한 논고이다. 이것은 바로 어떤 사태를 각각의 언어 안에서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는 표현의 존재양식에 관한 연구임에 틀림 없다. 이것을 표현양상의 연구라 부르고 있다. 표현의 구조뿐만 아니라, 소위 구조로서 나타나지 않는, 표현의 모든 방법을 대상으

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표현구조의 연구 단계도 넘어서려고 꾀하는 것이다. ‘pibinpa-no kata-wa?’ (lit. 비빔밥의 분은?)라는 표현은 무엇을 그리고 있고 무엇을 그리지 않고 있는 것일까, 한국어와 일본어에 깊이 파고들어간 누구나가 느낄 이러한 표현양상의 한일어의 차이를, 계량과 함께, 대조연구, 표현양상론의 방법론을 구축하고 가시화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연구가 지향하는 것은, 표현양상을 가시화하려는 영위, 궁극적으로는 형태의 대조에 그치지 않고 언어가 행해지는 장소, 즉 언어장(linguistic field) 안에서 어떠한 표현의 방법을 선택하는가, 더 나아가서 언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뿐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까지 그려내려는, 말하자면 언어와 언어의 근간을 주시하려는 야망에 찬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연구의 시작에 불과하지만, 표현양상의 총체를 대상으로 삼으려는 연구라는 점에서 기존의 대조연구와 결정적인 한 획을 긋는 것이다. 언어가 어떻게 그려지는가는 그 언어만 보아도 알 수 있지만 어떤 식으로 그려지지 않는가는 오로지 대조연구라는 프리즘을 통해야만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영어와 한국어처럼, 너무나도 구조가 다른 언어간에서가 아니라 일본어와 한국어처럼 구조적으로 아주 유사한 언어간에서 암말로 치밀하게 그려낼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미 일본어학이나 한국어학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안 하느냐도 스스로의 과제가 된 것이다.

### 8.2. 밀해진 언어를 찾아서 ? 언어는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또 하나의 새로운 국면은 담화연구에서 개척되었다. 일본어의 담화연구는 1980년대 이후 큰 발전을 보였지만 한국어에 관한 담화연구는 한국에서조차 미개척 상태였으며 한국의 이원표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담화분석의 절차나 문자화의 프로토콜(protocol)까지도 미덥지 못한 단계였다고 말할 수 있다. 엄밀함을 으뜸으로 하는 전통적인 문법학자가 보면, 담화연구의 소박함과 애매함에 외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담화분석에 관한, 이선아[李善雅], 원지은[元智恩], 김경주[金慶珠], 김경분[金庚芬] 등의 일본에서의 시도도 겨우 시작된 단계이다.

미개척의 이러한 단계에 김진아[金珍娥] (2002)「日本語と韓国語における談話ストラテジーとしてのスピーチレベルシフト」(일본어와 한국어의 담화 strategy로서의 speech level shift), (2003)「“turn-takingシステム”から

“turn-exchangingシステム”へ」(‘turn-taking 시스템’에서 ‘turn-exchanging 시스템’으로), (2004)「韓国語と日本語のturnの展開から見たあいづち発話」(한국어와 일본어의 turn의 전개에서 본 맞장구 발화), (2004)「韓?語と日本語の文, 発話単位, turn-談話分析のための文字化システムによせて-」(한국어와 일본어의 문장, 발화단위, turn - 담화분석의 문자화 시스템을 위하여)라는, 담화를 둘러싼 일련의 연구가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2006)「日本語と韓?語の談話における文末の構造」(일본어와 한국어의 담화에 있어서의 문말의 구조)로 전개된다.

문자를 가지는 언어의 경우, 말해진 언어와 쓰여진 언어는, 그 표현이 다르다는 문제가 아니라 언어의 존재양식 그 자체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다. 언어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이러한 과제는 언어존재론(ontology of language)이라고 부를 만한 과제이다. 말해진 언어 그 자체와 문체로 서의 회화체는 다르다. 여기서 말해진 언어라 함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언어 그 자체, 어디까지나 리얼한 언어 그 자체의 모습을 일컫는다. 말해진 언어의 학문적인 연구는 특히 한국어에서는 전혀 확립되지 않고 있으며 그것을 주시함으로써 얻어지는 성과는 사실은 기존의 문법론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계기를 가지고 있다. 녹음이나 녹화라는 절차를 겪은 언어자료는, 문자화 ≠ 디지털화의 작업이 불가결한 것인데 바로 이 최초의 단계에서 우리는 어디까지가 언어음인가, 어디까지가 하나의 문장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 직면하는 것이다. 사실은 기존의 담화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제는 말하자면 경험적으로 처리되기도 하였던 부분이었으며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언어화한다는 작업은 행해져 오지 않았었다. 담화 그 자체의 자료는 한국에서도 상당한 양이 수집되어 있는 것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물음에 대한 다답 없이 우선 눈 앞의 담화를 자료로서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일단 만드는 것이 선행문제라는 목적인 단계였던 것이다. 이러한 목적인 단계의 주관성에 결별하고 가능한 한, 객관적인 형태에서 보려는 방법을 지향한 것이 이들 연구이다. 특히 turn의 이해를 둘러싼 turn-exchange론은 담화 구조의 양상을 어떻게 그리느냐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기도 하다. 담화에 있어서는 문장은 문장으로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문장은 항상 다른 문장에 지탱되어 다른 문장과의 공간적인 간격, 시간적인 중충구조 속에서 지탱되고 상대방의 발화에 지탱되면서 담화라는 전체 시스템 안에서

3) 실제의 말해진 언어에 대한 기존의 문법 연구의 한계는, 공손 표시(politeness marker)인 ‘-요/-이요’에 주목해 보는

것만으로도 금방 드러난다. 이 형태는 정서법에도 규정이 없을 뿐더러 자주 '해요' 체를 만드는 '-요' 와 혼동되고 또 한국 어 교육의 세계에서도 거의 대상화되지 않고 있었다. 실제로 말해진 언어에서는 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문법이 명확히 의식화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노마[野間秀樹] (2006 forthcoming) 참조.

문장(sentence)에서 출발하는 전통적인 문법의 성과는 실로 큰 것이었다. 그러나 문법은 a priori하게 문장에서 출발할 수는 없다. 그 까닭은 문장은 문장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담화(discourse) 그리고 텍스트(text)라는 형태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존재론적인 구조에 연유한다. 말해진 언어에서는 담화, 쓰여진 언어에서 텍스트라는 형태로 언어장(linguistic field)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문장이라는 단위는 그러한 존재에서 추출된 구조이며 어디까지나 현실에서 추상된 존재이다.

Noma(2005), 노마[野間秀樹] (2006) 참조.

4) 조의성[趙義成]의 사이트에서는 일본에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가 검색 가능하다.

변용하는 것이다. 고도로 조건이 통제된 80쌍, 모두 160명의, 대화 자료에서 그려낸 문말의 구조체를 둘러싼 대조연구에서는, '문장' (sentence)에 관한 기존의 언설이 얼마나 현실감이 없는 것이었는가를 여실히 보여 준다. '문장이란', '빌화란'이라는 근원적인 물음에 기존의 문법론이 대답을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가상된 문장 'S'에서 출발하는 소박한 옵티미즘은 리얼한 언어사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지탱할 수 없다. 눈 앞에 존재하는 이 언어음들이 도대체 sentence인가 어떠한가, 도대체 sentence란 무엇이며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가 하는 물음을 안지도 않고 sentence에서 '출발' 할 수는 없다. 더 나아가서 다름아닌 그 sentence는 상대방의 발화와 함께 동적으로 움직이는 존재인 것이며 그 참된 모습은 고립된 sentence만을 아무리 관찰해도 그려낼 수 없다. 하나의 sentence에서 출발하는 기준의 문법 = syntax의 한계를 이러한 일련의 연구는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저절로 다음과 같은 요구에 다르게 된다 – 기존의 문법을 바꿔 쓰라.<sup>3)</sup>

그리하여 말해진 언어에 대한 김진아[金珍娥]의 연구 성과는, NHK 텔레비전 한국어 강좌 등의 교재를 통해서 한국어 교육의 현장에까지 반영되게 되었다. 일본의 한국어 연구가 얼마나 한국어 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가 이러한 사실에도 나타나 있다.

## 9. 끝으로

본고는 1990년대 이후의 일본에서의 한국어 문법연구를 중심으로 개관한 것이지만 대상이 방대하므로 여기에 다루지 못한 중요한 항목들, 연구자들도 많을 것이다. 서지 정보는 여기에 든 학회지나 WEB 등으로 확인하기 바란다. 특히WEB에 의한 정보는 나날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본고를 보충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sup>4)</sup>

본고는 일본에서의 연구를 보고 그 특징을 보는 데에 주목하였으므로 한국에서 행해진 연구의 영향에 대해서는 일일이 언급하지 않았다. 본고에 등장하는 거의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다름아닌 한국으로 유학을 가서 한국에서 배운 경험이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일본에서의 한국어 연구의 근본은 한국의 연구가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대는 이미 한국의 연구, 일본의 연구라는 틀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参考文献

- 門脇誠一(1997)「現代朝鮮語の研究(文法以外の分野)」, 国立国語研究所『日本語と外国語との対照研究IV 日本語と朝鮮語(上巻)』東京:くろしお出版
- 亀井孝・河野六郎・千野栄一編著(1989)『言語学大辞典 第2巻 世界言語編(中)』東京:三省堂
- 菅野裕臣(1997)「現代朝鮮語の研究(文法)」, 国立国語研究所『日本語と外国語との対照研究IV 日本語と朝鮮語(上巻)』東京:くろしお出版
- 国立国語研究所(1996)『朝鮮語研究(朝鮮語母語話者に対する日本語教育) 文献目録』東京:国立国語研究所
- 志部昭平(1992)「日本における朝鮮語研究 1945~1991」『千葉大学人文研究』第21号. 千葉:千葉大学文学部
- 朝鮮学会(1981)「朝鮮学報総目録 第1輯~第100輯」『朝鮮学報』第101輯. 天理:朝鮮学会
- 日韓文化交流基金(2005)『日本における韓国・朝鮮研究 研究者ディレクトリ』東京:日韓文化交流基金
- 野間秀樹(2005)「韓国と日本の韓国語研究 - 現代韓国語の文法研究を中心にして」『日本語学』2005年7月号, vol.24, no.8. 東京:明治書院
- 野間秀樹(2006 forthcoming)「現代朝鮮語における丁寧化のマーカー-*yo/-iyol*について」『朝鮮学報』第199・200輯. 天理:朝鮮学会
- 藤井幸之助(1993)「日本語母語話者のための朝鮮語学習用教材・関連図書 目録」『阪南論集人文・自然科学編』第29巻第1号

高永根(1983)《國語文法의 研究》서울: 塔出版社  
高永根, 成光秀, 沈在箕, 洪宗善編(1992)《國語學研究百年史  
(I ~ V)》서울: 一潮閣  
노마 히데키[野間秀樹] (2002)《한국어 어휘와 문법의 상관구조》. 서울: 태학사  
노마 히데키[野間秀樹] (2006) '단어가 문장이 될 때: 언어장 이론 -  
형태론에서 통사론으로, 그리고 초형태통사론으로 - '《21세기 형태론,  
어디로 가는가》. 서울: 박이정  
노마 히데키[野間秀樹], 나카지마 히토시[中島仁] (2005a) '일본의 한국어  
교재' 《한국어교육론 1》 국제한국어교육학회(IAKLE)편. 서울: 한국문화사  
노마 히데키[野間秀樹], 나카지마 히토시[中島仁] (2005a) '일본의 한국어  
교육' 《한국어교육론 3》 국제한국어교육학회(IAKLE)편. 서울: 한국문화사  
서정수(1996)《국어문법 수정증보판》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서울大學校大學院國語研究會(1990)《國語研究 어디까지 왔나 – 主題別  
國語學研究史 –》서울: 東亞出版社

Noma, H. (2005) When Words Form Sentences; Linguistic Field Theory: From Morphology through Morpho-Syntax to Supra-Morpho-Syntax. "Corpus-Based Approaches to Sentence Structures." Usage-Based Linguistic Informatics 2. Edited by Toshihiro Takagaki, et al. John Benjamins.

朝鮮語研究所	<a href="http://www.lu-tokyo.ac.jp/tyosengo/">http://www.lu-tokyo.ac.jp/tyosengo/</a>
朝鮮語教育研究所	<a href="http://homepage1.nifty.com/KoreanEducationSoc/">http://homepage1.nifty.com/KoreanEducationSoc/</a>
조의성[趙義成] 東京外国语大学	<a href="http://www.tufs.ac.jp/ts/personal/choes/">http://www.tufs.ac.jp/ts/personal/choes/</a>
나카지마[中島仁] 東海大学	<a href="http://mklabo.hp.infoseek.co.jp/">http://mklabo.hp.infoseek.co.jp/</a>
노마[野間秀樹] 東京外国语大学	<a href="http://www.tufs.ac.jp/ts/personal/nomahideki/index.shtml">http://www.tufs.ac.jp/ts/personal/nomahideki/index.shtml</a>
유타니[油谷幸利] 同志社大学	<a href="http://www1.doshisha.ac.jp/~yyutani/">http://www1.doshisha.ac.jp/~yyutani/</a>



서울대학교 60주년 및  
규장각 창립 230주년 기념  
한국학 국제학술회  
“21세기 한국학의 진로 모색”  
“Korean Studies for the Next Hundred Years:  
REFLECTION & VISION”

2006년 5월 29일 초판 발행

펴낸곳 | 서울대학교 개교60주년 및 규장각 창립 230주년 기념

한국학 국제학술회의 조직위원회

편집주간 | 위원장 이태진

디자인 | 박재홍

편집 | 박재홍

© 2006 서울대학교 개교60주년 및 규장각 창립 230주년 기념

한국학 국제학술회의 조직위원회

Copyright © 2006 International Conference Commemorating  
The 60th Anniversar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 230  
Anniversary of The Kyujanggak Archives Organising Committee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대학교 개교60주년 및 규장각 창립 230주년 기념 한국학

국제학술회의 조직위원회에 있습니다. 이 책은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와 전재를 금합니다.

서울대학교 개교60주년 및  
규장각 창립 230주년 기념  
한국학 국제학술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COMMEMORATING  
THE 60<sup>th</sup> ANNIVERSARY OF SEOUL NATL UNIV. AND  
THE 230<sup>th</sup> ANNIVERSARY OF THE KYUJANGGAK ARCHIVES

# “21세기 한국학의 진로 모색”

“Korean Studies for the Next Hundred Years:  
REFLECTION & VISION”

한국학  
한국학  
한국학

“21세기 한국학의 진로 모색”

Korean Studies for the Next Hundred Years

REFLECTION & VISION

